

MLB닷컴, KIA 최형우 조명... “포기하지 않으면 밝은 날 올 것”

**방출 역경 딛고 2008년 만25세로 늦깎이 신인왕 수상
KBO리그 최초 1500타점 달성 “후배들 롤모델 되고파”**

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KIA 타이거즈 최형우(40)의 야구 인생을 조명했다. MLB닷컴은 9일(한국시간) 최형우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의 선수 생활을 돌아봤다. 2002년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에 데뷔한 최형우는 통산 2065경기 타율 0.312 373홈런 2323안타 1542타점 1224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934를 기록했다. 최형우는 지난 6월20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4회 2점 홈런을 터트리며 이승엽(1498타점)을 넘어 통산 타점 1위로 올라섰고, 최초 1500타점 고지를 밟았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프로에서 자리를 잡

은 최형우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금자탑이다. 2005시즌을 끝으로 방출 통보를 받은 최형우는 경찰청 야구단에 입대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2008년 삼성에 복귀해 늦깎이 신인왕을 차지했다. 당시 만 25세였던 최형우는 당시 기준 역대 최고령 신인왕 수상자였다. 최형우는 MLB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 초반에는 분명히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며 “모든 안타와 타점이 중요했고, 그것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야구단에 있을 때 야구를 매우 열심히 했다. 프로에 돌아오니 나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커리어 초반에 겪었던 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뒤늦게 기량을 만개한 최형우는 꾸준함을 앞세워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가 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시즌 연속 50타점 이상을 작성했다. 이 기간 매년 두 자릿수 홈런도 쏘아 올렸다. 최형우는 “과거에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유를 가지는 법을 배웠고, 내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떠올렸다. 최형우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걸어온 길과 느꼈던 감정들이 후배들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더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희망을 전했다.

뉴시스



女양궁, 아시아선수권 6연패...파리올림픽 출전권 싸늘이

**리커브 전통목 우승 차지해
컴파운드에서도 금 1개 획득**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2023 아시아양궁 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모두 획득했다. 임시현(한국체대), 안산(광주여대), 최미선(광주은행) 등으로 팀을 꾸린 한국은 9일(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6-2(56-53 60-55 53-55 57-55)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아시아선수권 여자 단체전 6연패를 작성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파리올림픽 출전권 1장을 획득했던 여자 대표팀은 이번 우승으로 3장을 모두 따냈다. 여자대표팀과 달리 남자 대표팀은 지난 8월 열린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으로 이미 3장을 획득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대표팀은 남자 3장, 여자 3장으로 구성된 총 6장의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아니라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양궁 강국의 면모를 자랑했다. 김우진(경주시청), 이우석(고오룡), 김재덕(예천군청)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대회 남자 단체전에서 카자흐스탄을 6-2(58-56 54-57 58-53 59-53)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통산 18



(사진 왼쪽부터)안산, 최미선, 임시현.

회 우승을 기록했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우진이 탕치춘(대만)을 꺾고 우승을 거뒀다. 준결승전에서 탕치춘에 패했던 이우석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우진에 패했던 김재덕을 누르고 3위를 기록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항저우 대회 때 3관왕을 기록한 임시현을 꺾고 최미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이우석과 임시현은 혼성전에서 힘을 합쳐 중국을 무너

트리코 우승을 차지했다. 리커브에서만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낸 한국은 컴파운드 종목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최용희, 김중호(이상 현대제철), 양재원(상무)으로 꾸려진 남자 대표팀은 컴파운드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뉴시스

역대 KS 한 경기 최다 득점 2위까지...무서운 LG 타선의 힘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 한국시리즈 4차전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 15대 4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둔 뒤 선수들끼리 기뻐하고 있다.

‘메가트윈스포’가 한국시리즈(KS·7전4승제)에서도 폭발했다. LG는 1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솔 KBO KS 4차전 KT 위즈와 경기에서 15-4 대승을 거뒀다. 1차전을 패한 뒤 2-4차전을 연달아 잡아낸 LG는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앞서며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뒀다. 그야말로 타선의 대폭발이었다. 15점은 역대 KS 한 경기 최다 득점 2위의 기록이다.

17안타로 15득점 몰아쳐...2001년 두산 18득점에 이은 역대 2위 기록

이 부문 1위는 2001년 10월 25일 두산 베어스가 잠실 삼성 라이온즈와 KS 4차전에서 남긴 18득점이다. 당시 두산은 18-11로 삼성을 물리쳤다. 종전 2위 기록이던 14점은 뛰어넘었다. 빙그레 이글스가 1988년 10월 23일 해태 타이거즈전에서 14-3으로 이긴 바 있고, 2001년 10월 27일 삼성이 두산을 14-4로 꺾었다. LG는 이날 홈런 3방을 포함해 장단 17안타를 몰아치며 KT 마운드를 정신없이 두들겼다. 1회 김현수가 KT 선발 엄상백을 상대로 날린 선제 투런포로 시동을 걸었다. 이후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나갔다. 5회 홍창기의 적시타로 한점을 보였고, 6회에는 문보경의 좌월 2점 홈런으로 달아났다. 5-0으로 앞선 6회말 KT가 1점을 내자 LG는 7회초 대거 7점을 몰아내며 추격의 싹을 잘랐다. 김현수의 우선 적시타에 이어 오지환이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3점 아치를 그렸다. 오지환은 3경기 연속 손맛을 보며 KS 최다 연속 경기 홈런 타이틀을 이뤘다. 종전 김재현(SK 와이번스)이 두산을 상대로 2007년 10월 29일 KS 6차전부터 이듬해 10월 27일 KS 2차

전까지 3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 올린 바 있다. 단일 시즌만 놓고 보면 오지환의 3경기 연속 홈런은 최초 기록이다. 쉬지 않은 LG의 방망이는 8회에도 3점을 쓸 어닝아웃 15점째를 채웠다. LG는 정규시즌에도 팀 타율 0.279로 가장 정교한 방망이를 뽐낸 팀이다. 득점권에서는 타율 0.298(2위)로 더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다. 29년 만의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LG는 KS에서도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포스트 시즌에선 상대팀에서도 ‘최고의 투수’를 올리 기 때문에 다득점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LG 타선 폭발은 더 돋보인다. 반면 KT는 이날 LG 선발 김윤식 공략에 실패하며 별다른 힘도 써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5회 1사 후야에 문상철이 김윤식을 상대로 이날 첫 안타를 기록했음에도 정도다. 전날 KS 3차전에서 홈런포를 날리며 살아나는 듯 했던 4번 타자 박병호는 이날 2타수 무안타 1볼넷 삼진으로 다시 고개를 떨궜다. 앤서니 알포드는 3회 첫 타석을 소화한 뒤 오금부위 통증으로 교체되는 등 운조차 따르지 않았다.

서선욱기자

“이정후 5년 830억원” ESPN, 대형 계약 전망

류현진 2년 185억원...오타니 10년 5억2000만달러로 예상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MLB)의 문을 두드리는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가 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튼로블루제이스에서 4년을 보낸 뒤 프리 에이전트(FA)로 풀린 류현진(36)도 다년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SPN은 10일(한국시간) FA 50명의 계약 규모를 예상해 공개했다. 이정후는 14위, 류현진은 40위에 자리했다. 이정후가 계약기간 5년, 6300만달러(약 830억원)에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 ESPN의 예측이다. 타자 중에서는 투타를 겸업하는 오타니 쇼헤이(1위), 외야수 코디 벨런저(4위), 내야수 맷 채프먼(8위)에 이어 4위에 자리했다. 이정후를 중견수가 아닌 우익수로 분류한 ESPN은 “이정후는 대다수 팀들이 주전급이라고 생각하는 탄탄한 선수다. 중견수 수비가 가능하며 중간 수준의 파워를 갖추고 있다. ‘고 평가했다. 아마모토 요시노부(오릭스 버펄로스)와 같은 나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강한 임팩트를 줄 만한 선수는 아니고, 이번 랭킹에서 이정후보다 순위가 낮은 선수들이 더 나은 기량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나이와 중견수까지 소화 가능하다는 유연성 때문에 상위 순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ESPN은 2020시즌 뒤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MLB에 진출한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이정후를 비교하기도 했다. 김하성은 4년, 280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이 매체는 “이정후의 연 평균 연봉이 김하성



보다 낮아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사치세와 이정후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6년 계약을 제시하는 팀이 나올 수 있다”며 “반면 이정후는 FA 시장에서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 단기 계약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0-2023년 토론토에서 뛰던 후 FA 시장에 나온 류현진은 2년, 1400만달러(약 185억원)에 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SPN은 “류현진이 1년 계약을 할지 좋은 후보로 느껴질 수 있다. 류현진은 구속이 평균 시속 88.8마일에 머물렀고, 2년간 17경기 등판에 그쳤다”면서도 “그럼에도 다년 계약을 원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또 “포스트시즌에서 3, 4선발을 맡아줄 수 있는 투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짧은 계약기간에 높은 연봉을 부르는 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위에 오른 것은 단연 이번 FA 시장 최대대로 손꼽히는 오타니다. ESPN의 예상 계약 규모는 10년, 5억2000만달러다. 2위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일본인 투수 아마모토 요시노부로, ESPN은 7년 2억1200만달러에 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강인, 리그 4연속 선발 ‘77분 소화’...3-0 승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이 3일(현지시간)이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3-24 리그 11라운드 몽펠리에와 경기 중 공을 몰고 있다. 이강인은 전반 10분 선제골을 넣어 리그 1 데뷔골을 기록하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 이강인이 스타드 드 랭스전에 선발 출격해 77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이바지했다. PSG는 12일 프랑스 랭스의 오귀스트 들론

이토 준야와 미니 한일전도 벌여 경기장에서 열린 2023-2024 리그앙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랭스에 3-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PSG는 8승3무1패(승점 27)를 기록하며 리그 단독 선두를 달렸다. 한국 축구 대표팀 이강인은 이날 경기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그 4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격하며 팀 내 입지를 굳혔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후반 32분 세르 에두르와 교체되며 전까지 팀 공격에 장의력을 더했다. 경기 후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평점 7.2를 받으며 무난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이날 경기에는 일본 국가대표 이토 준야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이강인과 미니 한일전을 벌였다. 이토는 이강인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평점은 팀 내 최고점인 7.8을 받았다.